



후순위채, '老테크'로 각광

위험한 만큼 수익 높아... 노인·장애인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최근 금융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가 '노(老)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도 발행 즉시 동이라는 실정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판매한 5년10개월 만기의 후순위채 5천억원이 이틀만에 모두 판매 완료되자 추가 발행에 나서 목표액의 4배에 육박하는 1조9천9억여원을 판매했다.

은행들은 후순위채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발행한다.

정기예금보다 금리 1%선 높아

은행이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채무의 변제순위가 일반채무보다 후순위로 원리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후순위채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국민은행 후순위채의 경우 1인당 최저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였으나, 개인에게 판매된 금액이 전체 판매액의 절반 수준인 9천9억원에 달한 점이 인기를 얻는 것은 변제순위가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도 3년짜리 정기예금이 4.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후순위채는 1% 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후순위채의 표면금리는 연 5.70%(복리채 실효수익률 5.82%)로 5년물 국고채 금리 5.15%는 물론 10년물 5.47%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어 노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상이자, 수급자 등은 1인당 3천만원 범위의 생계형저축 가입도 가

능하다.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가 가능해 만기 이전에도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5천억 발행·이틀만에 동나

그러나 현재까지 할인과 세금정산 등 문제가 있는데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거나 각 은행창구에서 후순위채의 매도와 매수 희망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 후순위채 매매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환은행은 이를 감안해 사내계시판에 'KEB 장터'를 개설해 후순위채 매수·매도 희망자를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은 물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후순위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후순위채 =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 낮은 순위로 우선주나 보통주 등 주식보다는 우선하는 채권.

보통 7~10년 만기로 발행하며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후순위채권, 부대 권리의 부여 유무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년 내지 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대 달성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적이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3개월 만기 후순위채 150억원을 8.5%로 발행했다. HK저축은행도 지난 1월과 2월 연달아 2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 나서며 일반 고객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여러차례 금융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융회사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져 후순위채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기준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총 13조 7천346억원에 달하고 있다. 만기는 2007년 1월28일에서부터 가장 2018년 11월까지로 다양한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제유가 연일 최고

WTI·브렌트유 72달러 돌파

두바이유 가격이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브렌트유 현물가가 배럴당 72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의 최고가 행진이 계속됐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9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5.70달러로 전날보다 0.20달러 올라 17일부 터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6차례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WTI 현물가도 전날보다 배럴당 0.76달러 오른 72.09달러를 기록해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브렌트유 현물가도 배럴당 1.46달러 오른 72.83달러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평균 62.95달러, WTI는 68.74달러, 브렌트유는 68.87달러에 달할 정도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물 원유가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WTI가 전날보다 0.82달러 상승한 배럴당 72.17달러에 마감되는 등 최고가 기록을 이어 갔다.

/연합뉴스

환율 5일만에 반등

전날보다 2.8원 오른 948.4원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80원 오른 948.4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0.10원 하락한 945.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945.40원으로 소폭 하락한 뒤 저가매수 유입으로 곧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환율은 역외 매수 강화로 949.30원까지 오른 뒤 상승폭을 약간 줄였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까지 하락세가 멈추며 원·달러도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기댄 매도세가 주춤해진 데 따른 것이다.

엔·달러 환율이 117원 중반으로 복귀하자 원·달러 945원선 지지 가능성에 기댄 매수가 유입됐다. 역외세력은 전날 8원이 나 급락한 데 따른 차익실현성 매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950원 부근에서는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달러매도에 나서며 추가상승을 가로막았다.

기업 '물류 아웃소싱'엔 세금감면 등 재정 지원

건교부, 법 제정 추진

기업이 물류활동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할 때 세금감면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인 물류정책기본법 제정안에 화주(貨主) 기업이 자체 물류시설을 매각할 때 양도세 감면 등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물류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는 관련법을 통합한 물류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업이 자체 물류시설이나 장비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폐지된 물류시설 부지를 용도전환할 때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물류업무 위탁할 경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물류창고 등 자체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지원돼 온 유통물류 합리화자금도 지원을 순차적으로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업이 물류활동을 제3자 물류업체에 위탁할 경우 자체 물류조직을 운영할 때와 비교해 물류비용이 10~2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건교부는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MBA 수준의 물류전문 대학원을 올해 9월 개설하고 대학원에 연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제3자 물류전환을 통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사례 등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올해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산업 합리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3자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자력 체험

20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2006 원자력 체험전에서 유치원생들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양성자 가속기를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 보고 中企 돈 빌려준다"

우리·신한·기업銀, 기술평가기관과 협약 체결

우수한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 63빌딩에서 기술이전사업화정책 심의회를 열고 우리·신한·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소 등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들 3개 은행은 산자부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추천하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등을 활용해 투자·신용대출·금리우대·보증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통해 올해 총 1조4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OU 체결에는 황영기 우리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강권석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황 행장은 "단순한 자금지원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금융기관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술기업의 자금지원 확산을 위해서는 은행 심사역에 대한 기술경영(MOT)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은행 등의 기

술기업에 대한 선별능력이 강화돼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이 기술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은 "이번 MOU는 그동안 담보위주로 진행된 기업에 대한 금융시스템을 기술성 평가 위주로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함께 갖춘 인재인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2010년까지 연간 2천500명 가량 양성키로 하고 올해 전문화과정 4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소비자 마음 읽어야 힘있는 아이디어 나와"

최판곤 멘토커뮤니케이션 대표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 힘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주)멘토커뮤니케이션 최판곤 대표는 "광고인이라면 소비자의 마음을 향해 귀를 열고, 광고주의 성공을 향해 눈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3월 창립한 멘토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

창립 1년만에 광고업계 50위권 진입

는 인물로 '현명한 조언자'를 뜻한다. 최 대표는 광고주와의 파트너십을 무엇보다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사명을 멘토르로 정했다.

멘토르는 창립된지 1년이 조금 넘는 현재 업계 50위권에 진입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아파트 및 분양광고로 진행, 광고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2000년 설립된 분양대행사인 (주)엠지알코리아를 활성화하고 엔터테인먼트 등 차별화된 통합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며 "호남지역 광고업계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광고인력 양성과 함께 광고연구소 설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영광출신으로 조선대 경영대 대학원을 나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車보험료 사고건수 따라 할증

손보업계 내년부터...차 모델별로도 차등화

내년부터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되고 최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어나거나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의 사고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체계를 사고건수로 전환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사고를 낸 횟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할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인·대물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사망사고는 40%, 부상사고는 상해등급에 따라 10~30%, 물적사고는 50만원을 초과하면 10%이며, 5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고규모는 우연성이 강하다"며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외국처럼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할인 기간과 할인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져 부품가격이 비싸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나 대형차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다른 차량은 내려가게 된다. 지금은 배기량과 차량가액, 운전자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의 경우 일부 지역의 반발이 큰 점을 감안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종합시스템	정규직 사원채용(사무관리/전기/환경토목)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4/23	062-953-6256
전남대학교 재료강도연구소	[기계시스템공학부]연구원	대원졸/경력무관	2,400~2,600	04/25	062-530-1668
대한생명보험(주)	2006년 금융전문 여성인력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04/25	011-9620-6805
공인테크	단순경리업무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25	062-955-3266
화인코리아	[배출,운전/환경/영양]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1-330-4520
리눅스아이티	임베디드 프로그래머	고졸/경력	회사내규	04/27	062-350-3087
창흥산업	매장관리 및 사무관리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28	010-4607-9954
HRN	SK텔레콤 CRM상담원 및 사무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8	062-529-2671
(주)진웅전기	전기산업기사 (초급, 경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9	062-972-6745
서도건설(주)	건축설비(소방포함) 공무기술자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4/30	062-682-8383
(유)보림건설	건설업 공무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30	062-682-5845
(주)피트코리아	기획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62-511-362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공정위 내달부터 '출중제 위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의 개편 추진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의 출중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해 출중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출중제 위반여부를 오는 5월과 6월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출중제 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출중제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출중제 대상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LG·SK·KT·GS·한화·금호아시아나·두산·한국철도공사·동부·현대 등 11개였고 기업집단에 소속해 출중제를 적용받았던 기업은 194개였다.

/연합뉴스